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28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상 수 도 사업본부	담 당 자	• 재해예방팀장 • 담당자	김수정 ☎720-2511 이안수 ☎720-251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피해 극복을 위해 ‘인천하늘수’ 가 달려갑니다!

- 인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인천하늘수’ 1만 병 긴급 지원 -
- 전북 익산시 시작으로 식수 필요한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인천하늘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일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천시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인천시는 ‘인천하늘수’ 1만 병을 전라북도 익산시에 우선 지원했다.

친환경 페트병에 담은 ‘인천하늘수’는 단수 지역과 관내 도서 지역의 비상 급수 용도로 사용하는 인천의 수돗물이다.

인천시는 이번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축 물량을 활용한 동시에, 병물 인천하늘수 생산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해 지원 물량을 준비했다.

인천시는 재난 상황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앞장서서 병물 인천하늘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 2월에도 남부 도서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 동참해 1만 3천 병을 지원한 바 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절실한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병물 인천하늘수를 긴급 지원한다”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의 피해라 생각하며, 온 마음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붙임〉 전북 익산시 ‘인천하늘수’ 지원 사진

